

# KDB생명 즉시연금 분쟁 오늘 결론... 재점화 vs 종결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KDB생명 약관 해석방법이 정점 보험금 추가 지급 권고할 경우 250억 즉시연금 여부 결정해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KDB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분쟁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권고한 바 있는데 KDB생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KDB생명 안건의 쟁점은 분조위가 KDB생명의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KDB생명 즉시연금 약관에는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



KDB생명 사옥 전경. /KDB생명

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에서 정한 바'가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 즉 사업비를 공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에 따라 분조위 결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이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입하면 보험사가 그 돈을 재원으로 굴러 매달 연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은 사업비 명목으로 매달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연금을 지급했는데 불분명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분조위는 삼성생명의 약관 중 매달 이자 지급 시 사업비 등 만기에 돌려줄 재원을 미리 뺀다는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화생명은 '만기 보험금을 고려해 연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약관에 넣었지만 '고려하여=사업비 공제'로

볼 수 없다고 분조위는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분조위는 삼성생명에 민원을 제기한 가입자에 대해 즉시연금 과소지급분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즉시연금 분쟁 1건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했으나 '일괄지급'은 거부했다.

삼성생명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한화생명은 아예 분조위 결정 자체를 거부했다. 지난달 9일 한화생명은 올해 6월 내리진 분조위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업계는 KDB생명 약관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게 약관을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앞선 사례들에 비해 약관이 구체적"이라면서도 "당국이 어려운 보험 약관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만큼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보험 약관을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약관 내용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어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비자권익에 더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만약 분조위가 KDB생명 약관이 미비해 보험금 추가 지급을 권고할 경우 KDB생명은 약 250억원의 즉시연금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KDB생명은 일단 분조위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분조위에서는 암보험 가입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치료비와 입원비가 보상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교육부-IBM 4차 산업혁명 '뉴칼라' 인재 양성

고교 3년·전문대 2년 연계 통합 뉴칼라 스쿨 'P-테크' 내년 개교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등 분야의 '뉴칼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P-테크'가 내년 국내에 문을 연다. 뉴칼라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등에 이은 신조어로, 전통적인 학위보다는 기술, 역량이 중요한 직업군을 일컫는다.

교육부와 한국IBM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컨퍼런스장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기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인 5년제 P-테크를 2019년 개교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로써 한국은 전세계에서 미국, 모로코, 호주,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P-테크 모델을 도입한 6번째 국가가 됐다. P-테크는 지난 2011년 미국 뉴욕에 처음 설립됐다.

'서울 뉴칼라 스쿨'로 명명된 국내 최초의 P-테크는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 2년을 연계한 5년제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되며,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로 개설된다.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장과 2년제 전문학사 학위가 주어진다. P-테크는 학생들에게 멘토링, 기업 방문 및 현장학습,



17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 교육부와 한국IBM이 '교육 혁신을 위한 P-테크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장화진 한국IBM 대표이사(왼쪽)가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IBM

유급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통신 기술 및 STEM 기반의 직업을 일찍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뉴칼라 직업군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수 있게 한다.

서울 뉴칼라 스쿨은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현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교육계 파트너로 세명컴퓨터고등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계 파트너로 한국IBM과 교원그룹이 참여한다. 2019년 정원은 52명이다.

교육부는 이 모델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2019년 이후 함께 참여할 교육계 및 산업계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IBM과 협력하고 있다. /구서준 기자 yuni2514@

## 무협, 중국 청두서 '한국 우수 상품전'

한국무역협회는 해양수산부, 중국 심천 티에스엘과 공동으로 중국 쓰촨성의 성도(省都)이자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의 서부 시작점인 청두에서 '한국 우수 상품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중국 최대의 국영 유통기업 뱁가드의 주요 중개관 대상인 심천티에스엘 직영의 프리미엄 유통매장에서 판촉전을 시작, 17일에는 진장호텔에서 중국 바이어 72개사를 초청해 19개 국내 참가기업들과 1대1 수출 상담회를 가졌다.

수출 상담회에는 중국의 대형 유통기업 및 수입상들이 대거 참가해 우리 기업들과의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김유진 기자 ujn6326@

##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제반시설 동편 이전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탑승수속 카운터와 라운지 등 제반 시설을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전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공사의 제1터미널 항공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10월 1일부터 탑승수속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전하여 운영한다. 탑승수속 카운터는 기존 K, L, M동에서 A, B, C 동으로 이전하며, 퍼스트와 비즈니스 라운지는 기존 43번, 28번 게이트 근처에서 11번과 26번 게이트 근처로 이전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수속카운터를 이전하며 상용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프리미엄 체크인 존'을 신설한다. /양성운 기자 ysw@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개막

17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에서 주랍 폴로리카쉬빌리 UNWTO(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박원순 서울 시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00억 대작 '로스트아크'...PC게임 부활 신호탄?

##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쇼케이스 사전예약 스타트... 개발 기간 7년 블럭버스터 스케일로 완성도 높여

스마일게이트가 개발비 1000억원을 투자한 대작인 PC 온라인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가 오는 11월 6일 출시된다. 게임 시장이 모바일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로스트아크'가 PC 온라인 게임이 부활 신호탄을 쏘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권혁민 스마일게이트그룹의장은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론칭 쇼케이스에서 로스트아크를 소개하며 "7년에 걸쳐 제작비 1000억원 이상 들어간 대작인 만큼 국내·해외 유저들이 첫사랑 느낌처럼 감동을 남기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트아크는 이날부터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로스트아크는 스마일게이트 RPG가 2011년부터 개발해 오고 있는 PC온라인 기반의 MMORPG다. 혼자서 다수의 적을 쓸어버리는 박진감 넘치는 핵앤슬래시(Hack & Slash)방식의 전투 콘텐츠, 동서양을 아우르는 방대한 세계관, 항해를 통해 다양한 섬들을 탐험하는 항해 시스템 등 블럭버스터 스케일을 자랑한다.

2014년 지스타를 통해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고, 3차례의 비공개 테스트를 거쳐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다. 개발 기간



권혁민 스마일게이트 의장이 로스트아크 론칭 쇼케이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은 약 7년이고, 투입된 금액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길 대표는 "음식을 만드는데 우려 내지 않고 깊이 없는 요리를 준비할 수 없듯이 게이머들에게 만족할 만한 MMORPG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겨냥한다. 글로벌 공통으로 통용되는 수집형 캐릭터, 음악 등에 신경을 써 게임 자체 각각 요소들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 대표는 "처음부터 해외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개발했다"며 "해외 국가별 진출 순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출시 이후 현지화가 잘 되면 빠른 속도로 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끔 모델은 게임 유저가 박탈감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캐릭터 아이템

등에 국한돼 마련할 예정이다. 지 대표는 "콘텐츠를 즐길 때 제한되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도록 유료화 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매 상품은 아바타, 탈 것, 외형변경, 편의사항 아이템 등으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게임 시장은 PC에서 모바일로 재편된 상황이다. '2017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매출은 4조 3301억원으로, 전년보다 24.3% 증가해 전체 게임시장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온라인 게임은 4조 6464억원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했다. 게임시장에서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 비중은 39.7%로 전년보다 7.2%포인트 늘었지만 온라인게임 비중은 42.6%로 후퇴했다.

모바일게임이 온라인게임을 넘어설 분기점에 스마일게이트가 PC온라인게임을 내놓는 이유는 장기 흥행을 위해서다. 모바일게임이 반짝 흥행에 그치는 반면, 온라인게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 등 장기적인 흥행작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조한욱 스마일게이트 사업실장은 "모바일 시장의 몸집이 커진 상태에서 로스트아크가 PC온라인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로스트아크의 사전예약은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예약에 참여하려면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김나인 기자 silkni@